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계

## 치유와 화해 기념주일

2014년 5월 25일 주일

5월 25일은 치유와 화해 기념주일입니다. 원주민들의 기숙학교와 관련되어 행하였던 일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 원주민 형제자매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면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원주민과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힘쓰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큰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사역을 전하는 소식이 “함께 이웃되기: 치유와 화해를 담는 이야기” (Becoming Neighbours: Stories about Healing and Reconciliation)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출판되었습니다. 온전한 화해를 이루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형제자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소망의 꿈을 꾸며 새로이 열리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St. Mark 장로교회(Orillia, Ontario)  
치유와 화해사역 자문위원회 의장  
(convener of the Healing and Reconciliation Advisory Committee)  
Linda Patton-Cowie 목사

## 치유와 화해 기념주일

2014년 5월 25일 주일

5월 25일은 치유와 화해 기념주일입니다. 원주민들의 기숙학교와 관련되어 행하였던 일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 원주민 형제자매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면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원주민과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힘쓰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큰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사역을 전하는 소식이 “함께 이웃되기: 치유와 화해를 담는 이야기” (Becoming Neighbours: Stories about Healing and Reconciliation)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출판되었습니다. 온전한 화해를 이루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형제자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소망의 꿈을 꾸며 새로이 열리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St. Mark 장로교회(Orillia, Ontario)  
치유와 화해사역 자문위원회 의장  
(convener of the Healing and Reconciliation Advisory Committee)  
Linda Patton-Cowie 목사

## 기도

인도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마음과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모든 풍성함을 값없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같이: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것이 충분치 않다는 듯,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라고 우리를 깨우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이제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꺼이 따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원주민 형제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위로를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기도

인도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마음과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모든 풍성함을 값없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같이: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것이 충분치 않다는 듯,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라고 우리를 깨우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이제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꺼이 따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원주민 형제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위로를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